

6/8(수) 시편 31–34편 죽음에서 생명 맛보기 [감사 시편]

본회퍼는 수감생활을 하며 시편으로 기도했습니다.

탈출구 없는 현실 속에서도 감사하는 시편 시들을 곱씹으며
한계 안에 허락된 선함과 기쁨을 맛보는 법(34:8–10),
하나님으로 기뻐하는 법을 터득했다고 말합니다.

탄식하는 시인들, 본회퍼, 또 우리 모두는
<나의 앞날이 주의 손에 있사오니(31:15)>와
<주여 어느 때까지니이까(13:1)> 사이를 오갑니다.
하나님에 대한 신뢰로 감사하며 인내하다가도
마주친 현실에 또 탄식하게 되는 것입니다.

녹녹치 않은 현실에서 둘 사이를 오가는 이들에게
<구원하신> 하나님에 대한 감사시편들은 참 소망이 됩니다(감사시의 감사).
죽음에서 구원받고, 간구가 응답되었다는 증언과 감사들을 통해
동일한 소망을 품고 인내하게 되는 것입니다(32:3–5, 34:4,6,17–18).

시인에게 <죽음>은 생물학적 사망이 아닙니다.
서서히 생기를 잃게 만드는 모든 것을 의미합니다(90:3–10, 103:14–16).
하나님과 그분으로부터 온 것들에 무감각해지고(88:10–12),
찬양하지 못하며 경이로움을 느끼지 못하는 상태입니다.

죽음으로부터 생명을 회복했다는 것은
예배로 들어가는 것,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뜻합니다(32:6).
죽음의 상황에서 하나님께 손을 뻗어 생명을 공급 받는 것입니다.

“내가 나의 영을 주의 손에 부탁하나이다(31:5, 놀23:46)”
예수님은 죽음의 절정인 십자가에서 하나님께 자신을 내어 맡기심으로
<구원>을 누리는 동시에, <구원>을 이루셨습니다.

- 나는 하나님으로 <살아나는 기쁨>을 맛보고 있습니까?
❶ 탄식과 죽음의 절정에서 하나님께 생명을 공급받고 있습니까?
❷ 현실을 보는 새로운 눈, 하나님으로 기뻐하는 방법을 터득하고 있습니까?

시편1권 (1-41편)

편	유형	편	유형
1	토라(지혜)시편	22	개인 탄식시
2	왕조시편	23	신뢰의 시편
3	개인 탄식시	24	찬양시
4	개인 탄식시(신뢰)	25	개인 탄식시
5	개인 탄식시	26	개인 탄식시
6	개인 탄식시(참회)	27	신뢰의 시편/개인 탄식시
7	개인 탄식시	28	개인 탄식시
8	찬양시	29	찬양시
9	개인 탄식시	30	개인 감사시
10	개인 탄식시	31	개인 탄식시
11	신뢰의 노래	32	개인 감사시(참회)
12	공동체 탄식시	33	찬양시
13	개인 탄식시	34	개인 감사시
14	개인 탄식시(=53편)	35	개인 탄식시
15	입장 기도문	36	지혜시편(탄식시/찬양)
16	신뢰의 노래	37	지혜시편
17	개인 탄식시	38	개인 탄식(참회)
18	개인 감사(왕조, 삼하22)	39	개인 탄식시
19	찬양시/ 토라(지혜)	40	개인 감사 노래/개인 탄식시
20	왕조시편	41	개인 탄식시
21	왕조시편		